

기대를 모으는 '2006 서울국제사진영상기자재전/디지털영상전' 의 다양하고 특별한 부대행사

5월 18일~21일 코엑스 태평양홀에서 펼쳐져



PHOTO&IMAGING 2006에서는 그 어느때보다 다양하고 알찬 부대행사로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세계 64개국에서 약 15,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PPA(Professional Photographers of America)와 함께 진행될 PPA Loan Collection, PPA Master's Seminar, Asia-Pacific Print Competition을 비롯하여 핫셀블라드 카메라 유저를 중심으로 한 '핫셀클럽 사진전'과 '일본사진전'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각 분야의 다양한 주제로 진행될 세미나와 6만 여명으로 예상되는 관람객을 위한 사진 촬영용 포토존도 마련될 예정이다. 또한 아시아 최초의 디지털 프린팅 전문 전시회인 'DPG Show'가 같이 개최되어 보다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 전시규모도 2배가량 커질 전망이다. |편집자 주|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서울 국제 사진영상기자재전/디지털 영상전 (PHOTO&IMAGING 2006)'이 오는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코엑스 본관 1층 태평양홀에서 개최된다.

한국광학기기협회와 한국사진기자협회, 코엑스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산업자원부와 대한사진영상신문이 후원하는 PHOTO & IMAGING은 코엑스의 대표 브랜드 전시로, 세계적인 전시회로의 성장을 위한 코엑스의 집중적인 투자 육성 전시회 중 하나이며 국내 전시 중 최초로 UFI(Union of International Fairs) 인증을 받은바 있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2006년에도 산업자원

부 유망전시회로 선정되어 전시회의 국제화와 대형화를 위한 지원을 받고 있다. 이미 아시아에서 확실히 자리매김 한 PHOTO & IMAGING을 국제적인 전시회로 발전시키기 위해 주최측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PHOTO & IMAGING 2006에서는 더욱 차별화되고 알찬 부대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그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현재 세계 64개국에서 약 15,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PPA(Professional Photographers of America)와 함께 진행될 PPA Loan Collection, PPA Master's Seminar, Asia-Pacific Print Competition 이 그것들이다.

PPA는 1885년에 설립된 '사진가의 발전 및 성공을 돕는' 역동적인 기관으로 회원 스스로가 직접 참여하고 회원에 의해 운영되는 비영리 영업 협회로서 다양한 회원들의 재능과 힘을 전문적인 임원들과 결부시켜 프로페셔널 사진가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긍정적인 이익을 창출하려 노력한다.

PPA 론 콜렉션 & ASP 론 콜렉션

이번 전시회에 소개 될 PPA 론 콜렉션 작품은 2005년 6월에 약 8,000여 점의 작품이 출품된 가운데 6명의 심사위원이 첫 번째 심사를 통해 약 1,600여 점을 제네럴 콜렉션으로

선정한 뒤 다시 8~10여 명의 심사위원이 제네럴 콜렉션을 대상으로 두 번째 심사를 하여 선정한 600~700여 작품들이다. 포트레이트 분야가 약 70% 내외로 주류를 이루며 광고, 순수사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PPA 마스터 디그리를 가진 사진가로 구성되며 과학과 예술로서 프로페셔널 사진의 이상 실현에 앞장서는 ASP(American Societies of Photographers) 작품도 만나 볼 수 있는데 이 작품들은 ASP 회원들이 제출한 작품을 심사해 제네럴 콜렉션으로 선정된 작품 중에서 다시 심사를 통해 선정한 뛰어난 작품들로 약 100여 점 가량 된다. 역시 70~80% 내외가 포트레이트 분야이며 나머지는 광고사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Asia-Pacific Print Competition

지난 2002년 PPA의 공개심사방식을 도입하여 시도되었던 '서울포토프린트 컴피티션'에 이어 2006년에는 Asia-Pacific Print Competition이 PPA와 같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 세계의 사진전문가 및 취미사진가들이 인물 사진, 상업/산업용 사진, 일러스트레이티브(크리에이티브, 풍경, 포토그래픽 아트, 포토저널리즘) 등 다양한 분야의 사진을 출품할 수 있으며 미국 PPA Master의 공정한 공개 심사를 통해 출품자들의 작품을 선정하게 되므로 참가자들은 이번 컴피티션을 통해 세계적으로 작품을 인정받을 수 있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틀에 의하여 자신의 작품을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에 국내외 많은 사진 애호가들의 뜨거운 관심이 기대된다.

(다음 페이지에 컴피티션 요강 참조)

다양한 사진전과 포토존 구성

이와 함께 진행될 부대 행사로 몇 가지 사진전이 계획되어 있는데 핫셀블라드 카메라 유저를 중심으로 한 핫셀클럽 사진전과 일본사진전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각 분야의 다양한 주제로 진행될 세미나와 6만 여명으로 예상되는 참관객을 위한 사진 촬영용 포토존도 마련될 예정이며 각 참가업체들이 진행하게 될 다양한 이벤트도 참관객들에게 흥미로운 볼거리와 찍을 거리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2006년부터는 아시아 최초의 디지털 프린팅 전문 전시회인 'DPG Show'가 같이 개최되어 보다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 전시 규모도 2배가량 커질 것으로 주최측은 내다보고 있다.



▶ 지난해 전시회 광경. 삼성테크윈에서 마련한 포토존에서 관람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 지난해 전시회에서 부대행사로 마련한 온라인사진동호회 전시관

Asia-Pacific Print Competition 요강

2nd Asia/Pacific Print Competition(심사위원 직접심사 부문)

접수기간 : 2006년 4월 1일 ~ 30일(18:00까지)

응모분야 : 컬러 · 흑백 불문하며 다음 분야로 정한다.

▶ 순수사진(자연, 환경, 생태, 풍물, 행사, 누드, 다큐멘터리 등) ▶ 인상사진 ▶ 광고사진 ▶ 디지털사진

응모방법 : 분야별로 각각 출품할 수 있다(출품료는 분야별 별도).

참가자격 : 제한 없음

출품규격 : 사진 크기는 28×32cm(11×14인치)이상 40×50cm(16×20인치)이지만, 반드시 40×50cm(16×20인치) 크기의 매트(두께 3~5mm)에 부착해야 한다.

출품수량 : 1인당 분야별 4점 이내(출품작은 반드시 작품 뒷면에 출품표를 부착해야 한다. 출품표는 www.photoshow.co.kr에서 다운로드)

출 품 료 : 60,000원

접수마감 : 2006년 4월 30일 18:00까지

접 수 처 : (우)135-731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번지 코엑스 서울 국제 사진영상 기자재전 담당자(전시1팀) 앞 (문의 전화: 02-6000-1068, 8133)

심사기간 및 시간 : 2006년 5월 18(목) 10:00-18:00

심사장소 : 코엑스

심사방식 : 1점씩 공개심사

심사위원 : 미국 PPA 공인심사위원(5명)

심사발표 : 2006년 5월 31일 www.photoshow.co.kr에 발표

저 작 권 : 출품작의 초상권은 출품자 본인이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하며, 입선된 작품의 저작권(출판, 광고 등)은 2년간 코엑스에서 행사한다.

작품반환 : 2006년 6월 중 개별 반환

기 타 : 80점 이상의 입선자는 PPA로부터 1점의 메리트(점수)를 인증 받는다.

주 최 : 코엑스

주 관 : PPK

후 원 : PPA

▶심사위원 명단

* 모두 PPA 마스터 포토그래퍼임.

- | | |
|---------------------------|----------------|
| 1. Buddy Stewart(심사위원장) | 5. Bert Behnke |
| 2. Michael Taylor(PPA 회장) | 6. Peter Dyer |
| 3. Helen Yancy | 7. Tim Walden |
| 4. Brad Affolder | 8. Sae Lee |

대한사진영상신문, 2006디지털기자재전 및 스튜디오 마케팅 세미나 -3월29일~30일 분당 코리아디자인센터 지하1층 1관, 2관에서 열려-

대한사진영상신문사(대표 · 연정희/www.photomarketing.co.kr)이 주최하고 한국코닥(주), (주)디지털포토가 후원하는 '2006 디지털기자재전 및 스튜디오 마케팅 세미나'가 3월29일(수)부터 30일(목)까지 분당 코리아디자인센터 지하1층 1관, 2관에서 개최된다.

금번 전시회는 다양한 디지털 사진기자재 전시와 함께 베이비 및 웨딩스튜디오 마케팅 기법, 스튜디오에 맞는 마케팅, 마이북 스토리 앨범을 이용한 스튜디오 매출 극대화 방안, 스튜디오에 효율적인 디지털 워크플로우, 스튜디오에 적합한 인물사진 수정기법 및 CMS활용 기법 등 스튜디오에 효과적인 마케팅 방안과 디지털 작업 기법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베이비 및 웨딩사진 시장에서의 효과적인 마케팅 기법과 순이익 창출 기법 소개'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는 ▲ 최신 온라인마케팅 장점과 활성화 방안 ▲ 효과적인 텔레마케팅 방법 ▲ 스튜디오 고객에게 고부가가치 상품 유도 ▲ 효과적인 거래처 관리와 순이익 창출법 ▲ 80년대 웨딩시장 황금기의 회복법 등을 강의하고, '스튜디오에 맞는 마케팅' 세미나는 ▲ 온라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홈페이지 관리요령 ▲ 고객계층과 연령에 맞는 응대 및 상품 구성 ▲ 촬영 대상에 맞는 스튜디오 분위기 조성 ▲ 체계적인 온오프라인 고객관리 요령 ▲ 촬영 후 사후 관리 ▲ SMS 및 e-mail을 통한 마케팅 활용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한편, 전일 무료로 진행될 '2006디지털기자재전 및 스튜디오 마케팅 세미나'는 전시회 및 세미나 참가객 전원에게 (주)디지털포토에서 후원하는 1백30만원 상당의 스튜디오용 앨범 편집 프로그램, '앨범마스터'를 선물로 증정한다. 단, 앨범마스터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대한사진영상신문사에서 사업자등록증을 팩스 또는 우편 접수하고, 행사 당일 (주)디지털포토 부스에서 수령하면 된다. 또한 앨범마스터에 대한 간단한 사용법은 행사 기간 중 소개할 예정이며, 추후 스튜디오에서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교육도 할 예정이다.

스튜디오용 자동 편집 프로그램, 앨범마스터는 손쉬운 앨범편집 기능을 비롯해 사진 셀렉팅 기능, 액션 동영상 및 플래시, 스크린 세이버 제작 기능을 포함하고, 템플릿 제작기를 이용해 사용자 스스로가 템플릿을 자체 제작해 다양한 디지털 상품을 제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행사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02-2025-4585) 또는 이메일(photo@chol.com)로 문의하면 된다.